

20세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기

허 광 섭

온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세기에 사상과 덕망, 인품에 있어서 그리고 빛나는 령도와 쌓으신 업적으로 하여 오늘도 태양의 존함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20세기는 명실공히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적품모로 빛나는 김일성동지의 세기였다.》

지나온 인류력사에는 20세기처럼 인민대중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진보와 반동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첨예하게 벌어진 세기가 없었다. 이 거창하고 격변하는 시대에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세계정치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정치가와 위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처럼 오랜 세월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속에 20세기를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신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는 없다.

20세기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기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0세기에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인류앞에, 조국과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0세기의 진보와 발전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우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것이다.

위인의 업적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얼마만한 높이에 끌어올렸는가 하는데 있다.

20세기 초엽까지만 하여도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면서도 력사밖에 서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반동적착취계급은 오랜 세월 저들의 사회적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민대중을 무지몽매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으며 결국 인민대중은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잃고 살아왔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반혁명세력의 가혹한 탄압을 면치 못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담당자이면서도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상실당한채 인간이하의 온갖 착취와 압박만을 강요당해온 인민대중을 력사상 처음으로 시대와 력사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오시였으며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혁명활동의 전행정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커다란 심혈을 기울

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시고 현실로 꽃피워오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으로 작성되고 관철되게 되었으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이 최우선시되는 인민중시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것은 이전세기들에서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었던 20세기의 새로운 면모였다.

오늘 이 땅우에 일떠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과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20세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인류력사에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운 변혁의 세기로 자기의 뚜렷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으며 인민대중이 시대와 력사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로 자랑스럽게 명명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0세기의 진보와 발전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또한 자주 기치밑에 전진하는 현대력사의 새 모습을 펼쳐주시고 빛내여주신것이다.

20세기 초엽의 세계정치무대는 강대국들의 무대였다.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을 비롯한 약소국들의 운명은 대국들의 손끝에서 처리되었으며 자기의것을 빼앗기고 업수임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할수 없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의 자주적권리와 존엄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무참히 유린하였으며 지배주의자들 역시 약소국들에 저들의 의사를 내리먹이고 그 나라들의 운명을 저들의 리익에 맞게 결정해버리곤 하였다. 결과 전인류적인 문제들과 개별적나라, 민족들의 운명문제들이 몇몇 개별적나라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처리되는 대국주도의 정치풍토가 만연되게 되었으며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을 비롯한 약소국들에서는 사대와 교조가 나타나 나라와 민족의 존망과 전도를 좀먹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대와 교조의 력사를 끝장내고 모든 나라, 민족들이 자주적으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력사의 새로운 장, 자주의 새시대를 펼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시고 자주의 신념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시였다. 자기 나라 혁명, 자기 나라 실정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제일 잘 알며 또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한다는것이 한평생 간직하시고 구현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신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자주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혁명투쟁에 구현하신것은 인류사상사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사에서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령도의 기간 자주를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른 나라 당, 국가들과의 관계도 철저히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시여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적권위와 존엄을 높이 떨치시고 반제자

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강권과 전횡이 만연되던 지난 세기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수령님의 대용단과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으시고 배심있게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혁명실천은 현대정치사의 훌륭한 귀감이였다. 하기에 오늘 자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의 뚜렷한 상징으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어로 빛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20세기는 자주만이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이라는 진리가 밝혀진 자주의 세기로 빛을 뿌리게 되었으며 인류의 자주적발전과 광활한 미래를 펼쳐준 세기로 력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20세기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기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0세기에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숭고한 풍모를 지니신 어버이로 높이 칭송받으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선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시고 혁명의 승리를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이 겪을수 있는 고생과 슬픔을 다 겪으시면서도 오직 혁명만을 생각하시였고 생일날, 명절날도 따로 없이 공장과 농촌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으며 팔순이 넘는 고령에도 헌신적으로 사업하시였다. 세상에 위대한 수령님처럼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집무실에서 순직하신 그런 위인, 그런 절세의 애국자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 제일배짱가이시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반제계급투쟁의 최전선이였으며 자주정치의 타수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위협과 압력은 그칠새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이 있고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든든한 배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침예한 정치군사적동란이 그 어느때보다도 복잡다단하였던 20세기의 소용돌이속에서 자기의 정치적신조를 순간도 굽히지 않고 맞받아나기 승리에 승리만을 이룩해오신 신념과 의지의 최고화신, 담대한 배짱의 제일소유자는 위대한 수령님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시였다. 혁명은 곧 동지이며 동지는 곧 혁명이라는 철리에 기초하여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동지애의 새 력사를 펼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기간 혁명을 해오시면서 그가 누구든 일단 동지적관계를 맺으시면 그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주시였으며 수천수만의 혁명전사들을 한품에 안아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결한 동지애에 의하여 일찌기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결합된 새형의 혁명가들의 대오가 꾸려졌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를 원천으로 하여 우리 사회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동지의 세계로 전변되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는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

온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력사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또한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없이 뜨거운 인정미와 검박하고 소탈한 품성을 지니신 자애롭고 친근한 인민의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노동자들을 만나시면 그들의 기쁨물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농촌에 가면 스스로없이 밭머리에 앉으시여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다심한 어머니와도 같이 그들의 속생각까지 다 헤아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처럼 인민들과 룡담도 즐겨하시고 유모아와 생활적인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인민적령도자는 동서고금에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였지만 자신에 대한 그 어떤 특혜와 특전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겹혀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시였다. 하기에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들과 위대한 수령님사이에는 한치의 간격도 없었으며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흠모하고 충정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대해같은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성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은혜로운 품이였다. 만사람을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넓은 도량으로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 있었기에 어제날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까지도 수령님을 재생의 은인으로, 민족의 어버이로 따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생을 빛내일수 있었다.

한없이 넓고 웅심깊은 인정미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여러 나라 당,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의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과도 두터운 우의를 맺으시였다. 사상과 정견이 다른 사람들도 누구든지 위대한 수령님을 한번 만나뵈오면 그 고결한 인품에 매혹되어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은 세상에서 동지와 벗이 제일 많은분이시였다.

참으로 쌓으신 업적에 있어서뿐아니라 지니신 품모에 있어서도 제일이신 위대한 수령님은 태양으로밖에 달리 부를수 없는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20세기는 수령님의 존함을 떠나 불리울수 없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20세기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기로 빛내이도록 하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오늘 조선혁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20세기에 이룩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